

# 이란 전쟁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조용훈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yongcho@kiep.go.kr, 044-414-1509)



## 차 례

1. 러시아의 재정 압박과 외생 충격
2. 이란 전쟁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충격
3. 유가 급등의 러시아 재정 파급 경로와 정책 반응
4. 정책 시사점

## 주요 내용

- ▶ 2026년 초 러시아 재정은 에너지 세수 급감과 지출 집중이 겹쳐 구조적 긴축 압력에 진입해 있었음.
  - 1~2월 연방 재정적자는 3조 4,500억 루블로 확대되어 연간 목표치의 90%를 넘어섰으며, 전체 재정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석유·가스 세입이 전년동기대비 47.1% 감소하며 재정 압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 러시아 재무부는 재정준칙 기준유가 인하·비민감 지출 조정·국부펀드 인출·국채 발행을 검토함.
- ▶ 이란 전쟁은 물류 차질로 시작해 생산 중단과 공급능력 훼손으로 이어진 구조적 공급 충격으로 작용함.
  -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무역의 약 25%를 담당하던 핵심 물류 통로로, 해협 봉쇄 이후 발생한 공급 차질은 현대 석유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됨.
  - 카타르 LNG 설비 피해는 복구에 최소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조기 종전 이후에도 가스 가격의 중기 상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
- ▶ 에너지 공급 충격은 국제유가 급등과 우랄유가 할인폭 축소를 동시에 유발하며 러시아 재정 여건을 개선시켰고, 연초에 예정되던 긴축 경로를 사실상 뒤로 미루는 효과를 냈음.
  - 4월 석유·가스 세수 반등이 예상되면서 이란 전쟁 직전까지 검토되던 긴축 논의는 2027년 이후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단기적으로는 국부펀드 인출과 국채 발행의 필요성도 크게 낮아짐.
  - 미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우랄유가 할인이 추가로 축소되었고, 이는 러시아의 재정 수혜를 더욱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 이번 유가 충격은 러시아 재정위기의 표면화를 지연시키는 단기 완충재이나, 전쟁지출 여력 확대를 통해 그 파급이 에너지 시장을 넘어 지정학적 구도에까지 미치는 변수로 작용함.
  - 유가 상승 이후 계획된 긴축이 유예되면서 러시아는 국방·안보 지출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단기 여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 ▶ 이번 충격은 한국에 에너지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재확인시켰으며, 공급 안정성 중심으로의 조달 전략 전환과 러시아와의 조건부 에너지 협력에 대한 중장기 검토 필요성을 제기함.
  -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 나프타의 약 34%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함.
  -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재개는 지정학적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비중동 공급 다변화 관점에서 조건부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1. 러시아의 재정 압박과 외생 충격

### 가. 러-우 전쟁 장기화와 2025년 재정 슬럼프

■ 러-우 전쟁 장기화로 국방·안보 관련 지출이 재정운용의 고정비용으로 굳어지면서, 2025년 러시아 재정은 구조적 압박 국면에 진입하였음.

- 2025년 연방 재정적자는 2020년 이후 최대치인 5조 6,500억 루블까지 확대되며 전시재정의 구조적 부담을 수치로 보여줌.<sup>1)</sup>
- 에너지 수익성 악화와 성장 둔화가 겹치면서 세입 부진과 지출 고착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형성됨.

■ 러시아 정부는 전시재원 조달을 위해 반복적인 세제 개편과 증세조치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일회성 보강이 아닌 구조적 세입 확충 기조가 정착해가는 과정임을 시사함.

- 2025년 1월부터 발효된 세제 개편은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 과세 강화와 법인세율 인상(20% → 25%),<sup>2)</sup> 고수익 렌트 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포함하였음.<sup>3)</sup>
- 2026년 1월 발효된 추가 재정개혁 패키지는 사업세 면세 기준 강화, 부가가치세 인상 등 민간부문에 대한 조세 부담을 더 확대했으며, 반복적 증세가 재정정책의 기조로 정착하고 있음을 시사함.<sup>4)</sup>

■ 2025년 러시아 재정 운용은 경기 부양보다는 확대된 전공지출 유지를 위한 자원 방어와 재정건전성 관리에 집중되었음.

- 세입 확충의 중심이 성장 촉진보다 증세와 제도 조정에 놓였다는 점은 이란 사태 이전부터 러시아 재정정책의 우선순위가 이미 전환되고 있었음을 보여줌.

### 나. 2026년 초 재정 악화와 긴축 대응 구상

■ 2026년 들어 러시아 재정 압박은 더욱 가시화되었으며, 1~2월 연방예산 적자는 약 3조 4,500억 루블로 확대되어 연간 목표치의 90%가 불과 두 달 만에 소진되었음.

1) Reuters(2026. 1. 20.), "Russia ran a 2026 budget deficit of 2.6% of GDP, highest since 2020," <https://www.reuters.com/business/russia-ran-2025-budget-deficit-26-gdp-highest-since-2020-2026-01-19/>(검색일 2026.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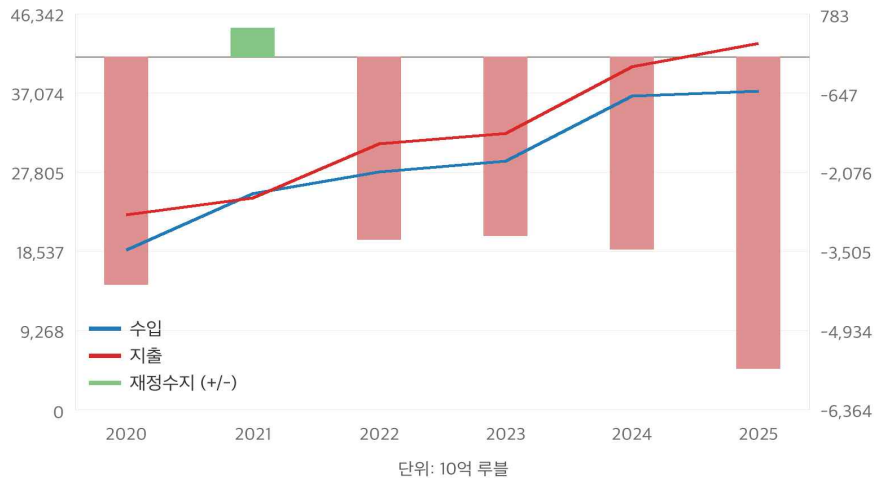
2) Минфин(2025).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БЮДЖЕТНОЙ НАЛОГОВОЙ И ТАМОЖЕННО-ТАРИФНОЙ ПОЛИТИКИ НА 2026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7 И 2028 ГОДОВ," p. 8.

3) Федер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2024. 12. 16.), "С1 января 2025 года начинает действовать прогрессивная шкала по НДФЛ," [https://www.nalog.gov.ru/rn49/news/activities\\_fts/15517714/](https://www.nalog.gov.ru/rn49/news/activities_fts/15517714/)(검색일: 2025. 12. 1.).

4) федер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2025. 12. 4.), "С1 января 2026 года изменятся условия для применения спецрежимов," [https://www.nalog.gov.ru/rn92/news/tax\\_doc\\_news/16586778/](https://www.nalog.gov.ru/rn92/news/tax_doc_news/16586778/)(검색일: 2025. 12. 8.).

- 재정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0.8% 감소한 4조 7,700억 루블에 그친 반면, 지출은 5.8% 증가한 8조 2,200억 루블로 늘어나<sup>5)</sup>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었음.
- o 해당 적자 규모는 GDP 대비 1.5%로, 연간 계획치인 약 3조 7,900억 루블의 90% 수준에 달함.<sup>6)</sup>

그림 1. 러시아 연방재정 수입·지출·적자 추이



주: 재정 수입 및 지출은 좌측 세로축, 재정수지는 우측 세로축 참고.  
자료: Минфин<sup>7)</sup>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구성함.

### 글상자 1. 러시아의 재정준칙

러시아 재정준칙은 석유·가스 세입의 변동성이 재정지출에 직접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된 규칙 기반 재정 운용 체계임.

#### [핵심 개념: 두 가지 유가의 구분]

러시아 재정준칙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유가 개념을 구분해야 함.

- **재정준칙 기준유가:** 정부가 예산 편성과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설정하는 유가. 실제 시장 유가와 무관하게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며, 지출상한 산정의 기준이 됨. 2026년 기준 배럴당 59달러.
- **과세 기준유가:** 러시아산 원유(우랄유)의 실제 시장 가격과 환율을 반영하여 실제 세액 산정에 사용되는 가격. 당해 연도 실제 에너지 세입 규모를 직접 결정함.

#### [재정준칙 작동 메커니즘]

지출상한(G)은 재정준칙 기준유가에 기반한 예상 석유·가스 세입(E[OGR])과 비석유·가스 세입(NOGR)의 합으로 설정됨.

$$G = E[OGR] + E[NOGR]$$

- 실제 과세 기준유가가 재정준칙 기준유가를 상회할 경우: 초과 석유·가스 세입은 NWF에 적립
- 실제 과세 기준유가가 재정준칙 기준유가를 하회할 경우: 부족분은 NWF에서 인출하여 보전

5) Минфин (2026. 3. 10.).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оценка исполн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за январь-февраль 2026 года," [https://minfin.gov.ru/ru/press-center/?id\\_4=40230-predvaritelnaya\\_otsenka\\_ispolneniya\\_federalnogo\\_byudzheta\\_za\\_yanvar-fevral\\_2026\\_goda](https://minfin.gov.ru/ru/press-center/?id_4=40230-predvaritelnaya_otsenka_ispolneniya_federalnogo_byudzheta_za_yanvar-fevral_2026_goda)(검색일: 2026. 4. 4.).

6) Коммерсантъ(2026. 3. 10.). "Бюджет утвердился в дефиците," <https://www.kommersant.ru/doc/8498068>(검색일: 2026. 4. 4.).

7) Минфин(2026. 2. 4.). "О нефтегазовых доходах и проведении операций по покупке/продаже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ы и золота на внутреннем валютном рынке," [https://minfin.gov.ru/ru/press-center/?id\\_4=40162-o\\_neftegazovykh\\_dokhodakh\\_i\\_provedenii\\_operatsii\\_po\\_pokupkeprodazhe\\_inostrannoi\\_valyuty\\_i\\_zolota\\_na\\_vnutrennem\\_valyutnom\\_rynke](https://minfin.gov.ru/ru/press-center/?id_4=40162-o_neftegazovykh_dokhodakh_i_provedenii_operatsii_po_pokupkeprodazhe_inostrannoi_valyuty_i_zolota_na_vnutrennem_valyutnom_rynke)(검색일: 2026. 4. 4.).

이 구조 덕분에 유가가 하락해도 재정지출은 준칙 기준유가에 연동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가가 상승해도 초과 세입이 즉시 지출로 이어지지 않음.

#### [외환·금 거래: 재정준칙의 집행 수단]

러시아 재무부는 초과·부족 세입의 NWF 적립·인출을 외환 및 금 매입·매각을 통해 집행함. 외환·금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재정준칙이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반대로 재무부가 외환·금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이는 초과·부족 세입을 NWF를 통해 조정하지 않고 재정지출 자체를 직접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하며, 재정준칙 운용이 유연화되었다는 신호로 해석됨.

자료: Минфин,<sup>8)</sup> Интерфакс,<sup>9)</sup> Bank of Russia<sup>10)</sup>의 자료를 저자가 취합하여 작성함.

### ■ 재정수입 감소의 핵심 원인은 에너지 세입 급감이었으며, 비에너지 세입의 완만한 증가만으로는 전시재정 부담을 상쇄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음.

- 같은 기간 비석유·가스 세입은 약 3조 9,400억 루블로 4.1% 증가한 반면, 석유·가스 세입은 8,260억 루블로 47.1% 급감하였음.<sup>11)</sup>
  - 이는 러시아 전체 재정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석유·가스 세입이 에너지 가격과 환율에 구조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 2026년 예산은 배럴당 59달러의 재정준칙 기준유가를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과세 기준 우랄유 가격은 1월 41달러, 2월 44.6달러에 그쳤고,<sup>12)</sup> 루블 강세까지 겹치면서 세수 부진이 심화되었음.
  - 러시아 재무부는 2월 초 추가 석유·가스 수입이 2,094억 루블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외환 및 금 매각을 통해 이를 보전하겠다고 발표하였음.<sup>13)</sup>

### ■ 이러한 재정 악화는 러시아 정부가 이란 사태 이전부터 긴축 강화와 재정준칙 보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

-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2월 말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2026년 예산지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정준칙 기준유가 인하를 포함한 준칙 강화 방안을 시사하였음.<sup>14)</sup>

8) Минфин(2026. 1. 15.), "О нефтегазовых доходах и проведении операций по покупке/продаже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ы и золота на внутреннем валютном рынке," [https://minfin.gov.ru/ru/press-center/?id\\_4=40162-o\\_neftegazovykh\\_dokhodakh\\_i\\_provedenii\\_operatsii\\_po\\_pokupkeprodazhe\\_inostrannoi\\_valyuty\\_i\\_zolota\\_na\\_vnutrennem\\_valyutnom\\_rynke](https://minfin.gov.ru/ru/press-center/?id_4=40162-o_neftegazovykh_dokhodakh_i_provedenii_operatsii_po_pokupkeprodazhe_inostrannoi_valyuty_i_zolota_na_vnutrennem_valyutnom_rynke)(검색일: 2026. 4. 4.)

9) Интерфакс(2026. 3. 24.), "В Минфине заявили что бюджетное правило может поменяться с 2027 года," <https://www.interfax.ru/business/1079744>(검색일: 2026. 4. 4.)

10) Bank of Russia(2020. 11. 5.), "Monetary Policy Guidelines for 2021-2023," p. 45.

11) Новость(2026. 3. 10.),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оценка исполн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за январь-февраль 2026 года"(검색일: 2026. 4. 4.)

12) Коммерсантъ(2026. 3. 10.), "Бюджет утвердился в дефиците," <https://www.kommersant.ru/doc/8498068>(검색일: 2026. 4. 4.)

13) Минфин(2026. 2. 4.), "О нефтегазовых доходах и проведении операций по покупке/продаже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ы и золота на внутреннем валютном рынке," [https://minfin.gov.ru/ru/press-center/?id\\_4=40162-o\\_neftegazovykh\\_dokhodakh\\_i\\_provedenii\\_operatsii\\_po\\_pokupkeprodazhe\\_inostrannoi\\_valyuty\\_i\\_zolota\\_na\\_vnutrennem\\_valyutnom\\_rynke](https://minfin.gov.ru/ru/press-center/?id_4=40162-o_neftegazovykh_dokhodakh_i_provedenii_operatsii_po_pokupkeprodazhe_inostrannoi_valyuty_i_zolota_na_vnutrennem_valyutnom_rynke)(검색일: 2026. 4. 4.)

14) Ведомости(2026. 3. 11.), "В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сократить расходы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10%" <https://www.vedomosti.ru/economics/articles/2026/03/11/1182194-sokratit-rashodi-byudzhet>(검색일: 2026. 4. 4.)

- 재무부는 당해 연도의 즉각적 변경보다 2027년 이후를 염두에 둔 중장기적 재정준칙 기준유가 조정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sup>15)</sup>

■ **긴축 대응 구상은 재정준칙 조정, 지출 우선순위 재편, 국부펀드(NWF)와 국채를 활용한 적자 보전의 세 축으로 구성되었음.**

- 재정준칙 측면에서는 재정준칙 기준유가를 낮춰 더 보수적인 세입 전제하에 지출 상한을 재설정하는 방안이 2027년 이후 적용을 목표로 논의되었음.
- 지출 측면에서는 연방예산 지출을 약 10% 축소하되, 감축 대상은 국가 프로젝트와 비민감 지출에 한정하고 사회정책·국방·안보 관련 지출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음.
  - 재무부는 지출 우선순위 조정이 국가 의무 이행과 전쟁 관련 지출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가 국채 발행을 억제하고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음.
- 적자 보전 측면에서는 저유가로 인한 석유·가스 세입 미달분을 재정준칙에 따라 국부펀드(NWF) 인출로 보전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외환·금 매각을 활용하는 구조를 유지하였음.

■ 이와 같이 이란 사태 이전 러시아 재정은 단순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더 낮은 유가 환경에 중장기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긴축 경로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음.

- 이 점에서 이후의 이란 전쟁은 러시아 재정에 단순한 단기 가격 상승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재정조정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외생 변수로 작용하게 됨.

## 2. 이란 전쟁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충격

### 가. 호르무즈 해협과 물동 차질

- 이란 전쟁의 에너지 충격은 생산 자체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물류 차질의 형태로 먼저 나타났으며, 우회 경로가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파급력이 현대 석유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됨.
- 호르무즈 해협은 2025년 기준 하루 약 2,000만 배럴의 원유·석유제품이 통과하던 핵심 병목으로, 전 세계 해상 원유무역의 약 25%를 감당해왔음.<sup>16)</sup>
    -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대안 경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용량 제한적) 정도에 불과하여, 봉쇄 시 물류 손실의 대부분이 실질적 공급 차질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15) Интерфакс(2026. 3. 24.), “ВМинфине заявили что бюджетное правило может поменяться с 2027 года,” <https://www.interefax.ru/business/1079744>(검색일: 2026. 4. 4.).

16) IEA(2026. 2.), “Strait of Hormuz Factsheet,” <https://www.iea.org/about/oil-security-and-emergency-response/strait-of-hormuz> (검색일: 2026. 4. 7.).

- 이란 해군의 유조선 공격과 통항 통제 강화 이후 호르무즈 통과 원유·석유제품의 흐름이 사실상 급감하였으며, 저장시설 포화와 제한된 우회 능력으로 공급 손실이 빠르게 확대되었음.<sup>17)</sup>
- 이란은 통항을 위해 혁명수비대와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해운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호르무즈 항로 운항 중단이 확산되었음.<sup>18)</sup>

■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장애는 중동산 원유뿐 아니라 글로벌 가스시장에도 즉각적인 공급 불안을 야기하였으며, 아시아 수입국에 특히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하였음.

- 카타르와 UAE의 LNG 수출이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며, 두 국가 합산으로 글로벌 LNG 수출의 약 20%를 차지함.
- 이들 물량의 대다수가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고 있어, 해협 봉쇄는 유럽보다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수입국에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공급 충격으로 작용하였음.

## 나. 중동 생산 차질과 shut-in의 확산<sup>19)</sup>

■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초기의 물류 충격은 산유국 내부의 생산 차질과 shut-in 확산으로 빠르게 전이됨.

- 해협 통항이 거의 정지되고 저장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걸프 산유국의 총 원유 생산이 1,100만 배럴 이상 줄어들었으며, 이 중 수출제약에 따른 강제 감산 규모는 세계 수요의 약 7%인 일당 700만 배럴 수준으로 평가됨.

■ 이번 생산 차질은 자발적 감산이 아니라 수출경로 상실로 인한 비자발적 shut-in이었으며, 이는 공급 충격의 성격을 단순 물류 차질에서 중기 생산능력 훼손으로 변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UAE에서는 호르무즈 봉쇄로 ADNOC<sup>20)</sup>가 광범위한 임시 유정 폐쇄를 시행하면서 원유 생산량이 평시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하였음.<sup>21)</sup>
- Shut-in은 단순히 선적을 미루는 조치가 아니라, 저장·수송·정제·생산이 연결된 에너지 산업 구조 특성상 상류 부문의 가동 자체를 멈추게 하여 공급 충격을 구조화하는 메커니즘임.
- Shut-in이 길어질수록 유정 압력 저하·설비 부식 등 재가동 비용이 높아지며,<sup>22)</sup> 향후 생산능력 회복 속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sup>23)</sup>

17) IEA (2026. 4.). "The Middle East and Global Energy Markets," <https://www.iea.org/topics/the-middle-east-and-global-energy-markets>(검색일: 2026. 4. 7.).

18) 송하윤, 강문수(2026. 4. 1.), 『마-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의 주요국 파급효과』, *오늘의 세계경제* 26-09, pp. 4-5.

19) shut-in은 수출경로 상실로 인해 생산된 원유·가스의 배출이 막히면서 생산 자체가 강제로 중단되는 현상을 말함. 비축이 어려운 석유·가스의 특성상,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생산 중단으로 즉시 전이되며,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가동이 더 어려워짐.

20) ADNOC: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21) Reuters. (2026. 3. 16), "Exclusive: UAE crude output falls by more than half as Hormuz closure forces shut-ins,"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uae-crude-output-falls-by-more-than-half-hormuz-closure-forces-shut-ins-2026-03-16/>(검색일: 2026. 4. 7.).

22) Hilgenstock, Benjamine *et al.*(2026. 3.), "Assessment of the Impact of the Iran War on Russia," KSE Institute, pp. 2-3.

- 생산 중단이 수년간 지속될 경우 중기 공급능력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유가의 하방 압력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이번 전쟁의 공급 충격은 물류 차질에 그치지 않고, shut-in 장기화를 통해 중기 생산 복구 시점을 뒤로 미루는 구조적 성격을 갖게 되었음.

- 조기 종전이 이루어지더라도 shut-in으로 인한 생산 정상화는 물류 복구보다 상당히 더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다. 카타르 LNG 설비 피해와 가스 충격의 장기성

■ 카타르 라스 라판 가스단지 피격은 이번 전쟁에서 가장 중장기적인 파급력을 갖는 충격으로, 단기 대체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공급능력의 구조적 훼손으로 평가됨.

- 라스 라판 가스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으로, 이번 전쟁으로 LNG 수출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되었음.
  - 피해 시설 복구에 최소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sup>24)</sup> 조기 종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에너지 시설 피해 복구 지연으로 유가와 가스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sup>25)</sup>
- 카타르·UAE의 LNG를 글로벌 시장으로 보낼 수 있는 실질적 대체 경로가 없으며, 다른 수출국의 액화 설비도 대부분 설계 최대 용량에 가깝게 가동되고 있어 잃어버린 물량을 단기간에 보충하기 어려운 상황임.<sup>26)</sup>
  - 주요 컨설팅 기관들은 카타르 피해와 호르무즈 봉쇄를 반영하여 글로벌 LNG 공급 전망을 최대 3,500만 톤까지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9년까지 지속적인 공급 차질을 예상함.<sup>27)</sup>

■ 이번 전쟁의 중장기 파급은 원유시장보다 LNG 시장에서, 특히 아시아 수입국에서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카타르의 공급 차질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대한 장기계약 이행 불가항력 선언으로 이어졌으며, 설비 피해 복구 지연으로 가스 가격의 고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큼.
- 호르무즈발 LNG 공급 차질은 아시아와 유럽의 현물 LNG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며, 가격의 상방 압력을

23) Henderson, J. *et al.*(2024. 3.), "Outlook for Russia's oil and gas production and exports," OIES paper: NG 189, UKERC, The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p. 65.

24) Reuters. (2026. 3. 16), "Exclusive: UAE crude output falls by more than half as Hornuz closure forces shut-ins,"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uae-crude-output-falls-by-more-than-half-hornuz-closure-forces-shut-ins-2026-03-16/>(검색일: 2026. 4. 7.).

25) 송하윤, 강문수(2026. 4. 1.),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의 주요국 파급효과」, *오늘의 세계경제* 26-09, p. 11.

26) IEA (2026. 2.). "Strait of Hormuz Factsheet," <https://www.iea.org/about/oil-security-and-emergency-response/strait-of-hormuz> (검색일: 2026. 4. 7.).

27) Reuters. (2026. 3. 26). "Iran war damage to Qatar hits global LNG outlook, upends Asia demand growth,"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iran-war-damage-qatar-hits-global-lng-outlook-upends-asia-demand-growth-2026-03-26/>(검색일: 2026. 4. 7.).

장기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sup>28)</sup>

- 이는 이번 충격이 단기 지정학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중기 LNG 시장 재편을 촉발하는 구조적 변수임을 시사함.

### 3. 유가 급등의 러시아 재정 파급 경로와 정책 반응

#### 가. 국제유가 상승과 러시아 에너지 세수 반등

■ 중동발 공급 충격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러시아의 석유·가스 과세체계가 고세입을 창출할 수 있는 가격 환경이 복원되었음.

- 러시아의 석유·가스 세입은 국제유가, 환율, 과세 기준 우랄유 가격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며, 국제유가 상승은 약 한 달의 제도적 시차를 두고 재정수입 증가로 연결됨.
  - 과세 기준유가는 3월 10일 기준 배럴당 6,105루블로 2월 27일 대비 82% 상승하였으며,<sup>29)</sup> 이는 러시아 석유기업의 3월 매출에 반영되어 4월부터 재정수입으로 유입됨.<sup>30)</sup>

■ 유가 반등은 에너지 세입 급감이라는 2026년 초 재정 압박의 직접적인 원인을 역전시키는 가장 즉각적인 외생 충격으로 작용하였음.

- 에너지 가격 충격은 러시아 재정의 보조요인이 아닌 재정수지와 전지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심 변수로 작동하였음.
  - 러시아 전체 재정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석유·가스 세입이 구조적으로 에너지 가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반등은 다른 어떤 정책 수단보다 빠르게 재정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음.
- 2026년 초 재정 악화의 원인이 에너지 세입 급감이었던 만큼, 유가 반등은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

■ 제도적 시차로 인해 국제유가 상승의 세입 반영은 4월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2/4분기 초부터 재정수입 흐름을 상방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로 이어졌음.

- 1~3월 석유·가스 세입은 1조 3,400억 루블로 전년동기의 2조 6,400억 루블을 크게 밑돌았으나, 이는 1~2월의 저유가 국면과 루블 강세 효과가 분기 누적치에 계속 반영된 결과임.

28) IEA(2026. 2.). "Strait of Hormuz Factsheet," <https://www.iea.org/about/oil-security-and-emergency-response/strait-of-hormuz> (검색일: 2026. 4. 7.).

29) Reuters(2026. 3. 11.), "Russian oil price used for taxation exceeds budget target, helping the state coff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russian-oil-price-used-taxation-exceeds-budget-target-helping-state-coffers-2026-03-11/>(검색일: 2026. 4. 4.).

30) Reuters(2026. 3. 18.), "Russia's March oil and gas revenues expected to fall 52% year-on-year"(검색일: 2026. 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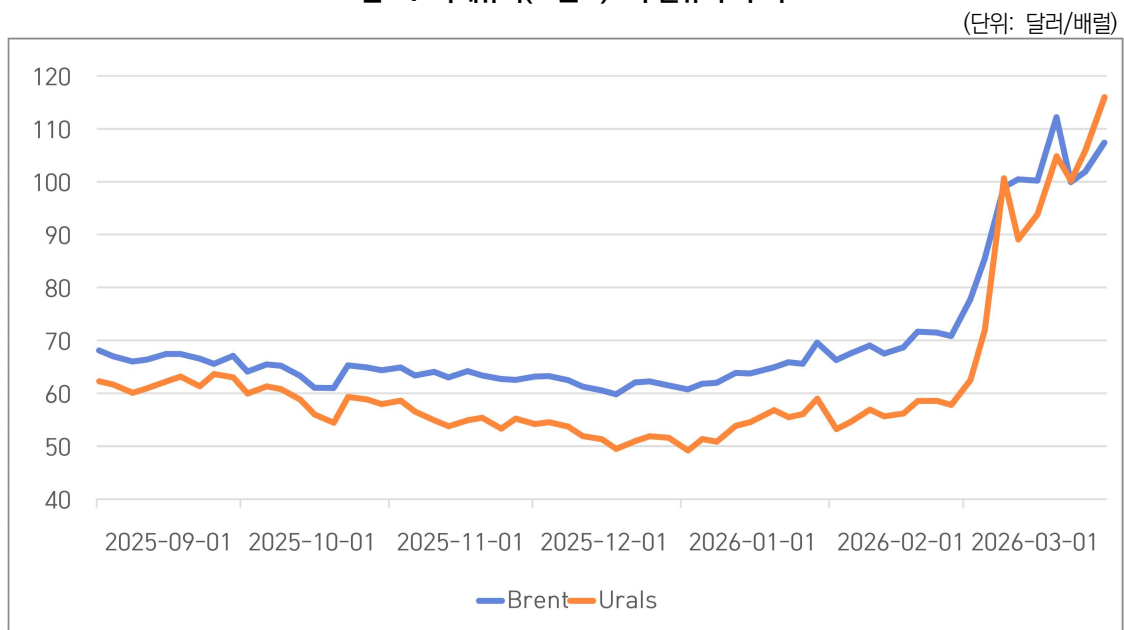
- 4월 석유·가스 세입은 전월대비 약 70% 증가한 9천억 루블에 달해 2025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며,<sup>31)</sup> 이는 3월 유가 급등이 한 달 시차를 두고 세입에 반영된 결과임.

## 나. 우랄유 할인 축소와 대러 제재 한시 유예의 효과

■ 이란 전쟁이 러시아 재정에 준 가장 중요한 추가 이익은 국제유가 상승 자체보다 우랄유 할인폭 축소를 통해 나타났음.

- 중동발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시장은 가격보다 물량 확보를 우선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산 원유의 제재 할인이 급격히 약화되었음.
  - o 대러 제재 이후 러시아산 원유는 브렌트유 대비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어 왔으며, 이 할인은 사실상 대러 제재의 경제적 비용을 반영하는 지표로 기능해왔음.<sup>32)</sup>
- 2026년 3월 초 우랄유가 사상 처음으로 브렌트유 대비 프리미엄에 거래되었으며,<sup>33)</sup> 이는 글로벌 공급 경색 속에서 러시아산 원유가 '제재 대상'이 아닌 '당장 조달 가능한 공급'으로 재평가되었음을 시사함.

그림 2. 국제유가(브렌트)·우랄유가 추이



자료: Incorrys<sup>34)</sup>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구성함.

31) Reuters(2026. 3. 24.), "Exclusive: Russia delays change to fiscal fund after Iran war energy price surge," <https://www.reuters.com/business/russia-delays-change-fiscal-fund-after-iran-war-energy-price-surge-2026-03-23/>(검색일: 2026. 4. 4.).

32) Oxford Analytica(2026. 4. 17.), "Moscow will use Iran war windfall to avoid budget cuts," [https://app.dowjones.com/oxford-analytica/articles/moscow-will-use-iran-war-windfall-to-avoid-budget-cuts-430be586?mod=oa\\_daily\\_newsletter](https://app.dowjones.com/oxford-analytica/articles/moscow-will-use-iran-war-windfall-to-avoid-budget-cuts-430be586?mod=oa_daily_newsletter)(검색일: 2026. 4. 20.).

33) Reuters(2026. 3. 11.), "Russian oil price used for taxation exceeds budget target, helping the state coff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russian-oil-price-used-taxation-exceeds-budget-target-helping-state-coffers-2026-03-11/>(검색일: 2026. 4. 4.).

34) Incorrys(2026. 4. 1), "Brent/Urals Differential 2022-2026," <https://incorrys.com/energy/energy-price-forecast/brent-urals-differential/>(검색일: 2026. 4. 23.).

- 국제유가 상승과 우랄유 할인폭 축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효과로 인해 러시아의 실질 수출단가와 과세 기준 유가는 브렌트유 상승분보다 더 크게 개선되었음.
  - 국제유가가 상승하더라도 러시아산 원유의 할인폭이 유지되면 재정효과는 제한되나, 이번 전쟁에서는 유가 상승과 할인폭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며 재정수혜가 증폭되었음.
  - 인도 정유사들의 조달 압박으로 우랄유가 브렌트유 현물가격에 근접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거래일에는 상회하기도 하였음.
- 미국은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으며, 이는 할인 축소 효과가 실제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는 촉매 역할을 하였음.
  - 미국은 이미 유조선에 적재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30일간 제재 적용을 유예하여 구매자들이 제재 위험 없이 물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함.<sup>35)</sup>
    - 해당 라이선스는 이미 적재된 원유 약 1,900만 배럴과 30만 톤 이상의 석유제품에 적용되었으며,<sup>36)</sup> 4월 17일 추가 연장되어 5월 16일까지 유효한 상태임.<sup>37)</sup>
  - 제재 유예와 고유가가 결합되면서 러시아는 이미 선적되어 바다에 묶여 있던 물량을 최고가에 현금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3월 해상 원유 수출수입은 2월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이 결합효과는 광물채굴세 기준 70억~90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sup>38)</sup> 정책의 공식 목적은 시장 안정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재정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효과를 낳았음.
  - 한시적 제재 유예 조치가 반복 연장되고 있다는 점은, 중동발 공급 불안이 지속되는 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예외적 수요와 거래 허용이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 아시아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중동산의 실질적 대체 공급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수요 기반이 확대되었고, 수요 확대와 할인폭 축소의 결합이 러시아의 재정 효과를 추가로 증폭시켰음.

## 다. 긴축 논의의 유예와 러시아 경제에 대한 파급

- 에너지 가격 급등의 가장 직접적인 정책 효과는 이란 전쟁 이전에 검토되던 긴축 경로가 유예된 데 있음.
  - 이란 전쟁 이전에 발표가 예정되었던 재정준칙 기준유가 인하<sup>39)</sup> 조치는 전쟁 이후로 연기되었으며, 관련

35) AP News(2026. 3. 14.), "US eases some Russian oil sanctions but crude prices stay high," <https://apnews.com/article/russia-oil-sanctions-iran-war-hormuz-d131631be94766f50a5b1888b2aad778>(검색일: 2026. 4. 4.).

36) Коммерсантъ(2026. 3. 16.), "Песков допустил рост доходов бюджета России из-за подорожания нефти," <https://www.kommersant.ru/doc/8513200>(검색일: 2026. 4. 4.).

37) The New York Times(2026. 4. 17.), "Trump Extends Sanctions Exemption on Some Russian Oil as High Gas Prices Persist," <https://www.nytimes.com/2026/04/17/world/middleeast/russia-us-oil-sanctions.html>(검색일: 2026. 4. 22.).

38) Oxford Analytica(2026. 4. 17.), "Moscow will use Iran war windfall to avoid budget cuts," [https://app.dowjones.com/oxford-analytica/articles/moscow-will-use-iran-war-windfall-to-avoid-budget-cuts-430be586?mod=oa\\_daily\\_newsletter](https://app.dowjones.com/oxford-analytica/articles/moscow-will-use-iran-war-windfall-to-avoid-budget-cuts-430be586?mod=oa_daily_newsletter)(검색일: 2026. 4. 20.).

39) 재정준칙 기준유가 인하는 예상 에너지 세입을 낮추는 가정으로, 러시아의 재정준칙하 긴축 재정을 위해 보수적인 세입을 가정한 뒤 여기에 지출을 맞추는 노력으로 해석됨.

법 개정도 2027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짐.<sup>40)</sup>

- 정부가 계획하던 연방예산 지출 약 10% 삭감도 사실상 철회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준칙 기준유가 역시 당분간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o 2026년 재정전망이 개선되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가 반등이 연간 재정 경로 전체를 상방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반영함.

**■ 에너지 수입 증가는 러시아 재정운용의 우선순위를 NWF 적립보다 단기 재정수요 충당 쪽으로 이동시키며 재정준칙 운용을 실질적으로 완화함.**

- 러시아 재무부는 외환·금 거래를 7월까지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초과 석유·가스 세수가 NWF에 자동 적립되지 않고 당장의 재정운용 재원으로 직접 활용되었음.<sup>41)</sup>
  - o [글상자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환·금 거래 중단은 재정준칙 기조가 유연 운용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신호임.

**■ 긴축 유예는 성장 전망 방어로 이어지면서 러시아 경제 전반의 급격한 위축을 완화하는 정책효과를 가져왔음.**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에너지 세입 감소로 인해 2026년 성장 전망치를 0.7%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국제유가의 고점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1.3% 전망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o 러시아 정부는 4월 거시전망 업데이트를 통해 평균 유가 전망을 상향 반영할 예정이며, 이는 에너지 가격이 성장 경로에 직접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줌.

**■ 조기 종전 시에도 에너지 시설 복구 지연으로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2026년 러시아 재정이 연초 압박을 상당폭 상쇄할 수 있는 추가 세입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함.**

- 조기 종전 이후에도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고 연중 배럴당 84~90달러 범위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sup>42)</sup>
- 이 유가 범위를 적용하면 2026년 4~12월 러시아 재정에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 재정수입은 약 273억 6천만~360억 달러(2조 5백억~2조 7백억 루블) 수준으로 추정되며,<sup>43)</sup> 이는 연초 재정적자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규모임.
  - o 월평균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러시아 에너지 수출수입은 약 28억 달러, 재정수입은 약 16억 달러 증가한다고 평가되며,<sup>44)</sup> 위 추정치는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 수치임.

40) Reuters(2026. 3. 24.), "Exclusive: Russia delays change to fiscal fund after Iran war energy price surge," <https://www.reuters.com/business/russia-delays-change-fiscal-fund-after-iran-war-energy-price-surge-2026-03-23/>(검색일: 2026. 4. 4.).

41) Oxford Analytica(2026. 4. 17.), "Moscow will use Iran war windfall to avoid budget cuts," [https://app.dowjones.com/oxford-analytica/articles/moscow-will-use-iran-war-windfall-to-avoid-budget-cuts-430be586?mod=oa\\_daily\\_newsletter](https://app.dowjones.com/oxford-analytica/articles/moscow-will-use-iran-war-windfall-to-avoid-budget-cuts-430be586?mod=oa_daily_newsletter)(검색일: 2026. 4. 20.).

42) 송하윤, 강문수(2026. 4. 1.),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의 주요국 파급효과」, *오늘의 세계경제* 26-09, p. 17.

43) 해당 계산은 1달러당 75루블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인용 자료에 따른 단순 계산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될 수치임.

44) The Economist(2026. 3. 13.), "Vladimir Putin enjoys a huge windfall from the Iran war," <https://www.economist.com/europe/2026/03/13/vladimir-putin-enjoys-a-huge-windfall-from-the-iran-war>(검색일: 2026. 3. 24.).

## 글상자 2. KSE의 이란 전쟁 시나리오 분석

우크라이나 키이우 경제대학(KSE) 소속 씽크탱크 KSE Institute는 이란 전쟁이 러시아 재정에 미칠 영향을 별도의 시나리오 분석으로 추정함. 해당 분석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걸프 지역 원유·LNG 공급 감소, 러시아산 원유 할인 축소, 대러 제재 집행 완화 등의 시나리오를 함께 가정하며 전쟁 기간과 공급 복구 속도에 따라 러시아의 수출 수입 및 재정수입 증가폭을 추산함.

- **낙관 시나리오:** 전쟁이 6주간 지속된 뒤 4주 이내 생산 및 물류가 빠르게 복구되는 시나리오로, 국제유가는 전쟁 중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유지한 뒤 연말 70달러 수준까지 하락한다고 가정함. KSE는 이 시나리오에서 2026년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출수입이 기준선 대비 840억 달러, 재정수입은 450억 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함.
- **중양 시나리오:** 전쟁이 3개월간 지속된 후 생산 및 물류가 4주 이내 빠르게 복구되는 시나리오로, 국제유가는 전쟁 중 140달러 수준까지 상승한 뒤, 연말 80달러 수준까지 하락한다고 가정함. 해당 시나리오는 기준 대비 1,610억 달러의 석유·가스 수출 수입 증가와 970억 달러의 재정수입 증가를 추산하며, 재정 압박이 상당폭 완화되며 높은 군사 지출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비관 시나리오:** 전쟁이 6개월간 이어지고, 이후에는 3개월에 걸쳐 느리게 복구되는 시나리오로, 국제유가는 150~2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연말에도 90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KSE는 이 경우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출수입이 2,520억 달러, 재정수입은 1,51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하며, 2026년 예산흑자와 향후 수년간 높은 전쟁지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할 가능성까지 언급함.
- **종합:** KSE 분석은 전쟁 기간과 공급 복구 속도에 따라 본문 추정치(273억 6천만~36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재정효과의 상방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낙관 시나리오(450억 달러)는 본문 추정치 상단과 어느 정도 근접하나, 중양(970억 달러)·비관(1,510억 달러) 시나리오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복구가 지연될 경우 재정효과가 본문 추정치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함.

자료: Hilgenstock, Benjamine *et al.*(2026. 3.), "Assessment of the Impact of the Iran War on Russia," KSE Institute, pp. 3-4.

■ 러시아 당국 스스로 이번 수입 증가를 구조적 회복이 아닌 일시적 추가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고유가 국면 종료 시 재정 취약성이 재부각될 수 있음을 내포함.

- 푸틴 대통령은 추가 에너지 수입의 활용에 대해 '균형 잡힌 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장기적 재정균형을 강조했다며, 이는 러시아 정부가 현재의 수입 증가를 영구적 여건 개선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함.

## 4. 정책 시사점

### 가. 러시아 경제에 대한 시사점

■ 이란 전쟁이 러시아 재정에 미친 가장 중요한 효과는 구조적 회복이 아니라, 2026년 초 표면화된 재정압력을 단기적으로 완화한 데 있음.

- 국제유가 상승, 우랄유 할인 축소, 미국의 대러 제재 유예, 재정 긴축 논의 연기는 러시아 재정에 추가 세입과 정책 재량을 동시에 제공하였음.
- 조기 종전 이후에도 에너지 시설 복구 지연으로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충격의 효과는 단순한 일시 반등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음.
- 이란 전쟁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2026년 중 재정준칙 기준유가 인하와 연방예산 지출 10% 삭감을 포함한 구조적 긴축 경로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번 충격은 그 경로를 최소 2027년 이후로 유예 시켰음.

■ 이번 완충효과는 러시아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제거한 것이 아니며, 고유가 국면이 종료되거나 제재 집행이 다시 강화될 경우 재정압박이 재차 빠르게 부각될 수 있음.

- 러시아 재정의 근본적 문제는 국방·안보 관련 지출이 고정화된 반면, 핵심 세입이 여전히 유가·환율·대외제재 환경에 구조적으로 좌우된다는 비대칭성에 있음.
- 러시아 당국 스스로 이번 수입 증가를 구조적 회복이 아닌 일시적 추가수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재정 여건 개선이 영구적이지 않음을 내부적으로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러시아는 강제적 긴축보다 중기 재정건전성 복원 경로를 선택적으로 설계할 여유를 확보한 것이며, 이 여유의 지속 여부는 유가와 제재 환경이라는 외생 변수에 달려 있음.

■ 이번 고유가 국면은 2025년 이후 누적된 러시아의 성장 둔화와 재정 피로를 외생적으로 완화하며, 구조적 개선 없이도 단기적 경기 지지 효과를 제공하였음.

- 에너지 가격 상승은 재정수입 확대를 통해 정부의 지출 여력을 보완할 뿐 아니라, 긴축 논의 연기와 성장률 전망 방어를 가능하게 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급격한 위축을 완화함.
- 러시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2025년 성장세가 둔화되고 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세입 저하와 전공지출 고착, 장기간의 고인플레이션·고금리, 반복적 증세가 겹치며 전반적인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음.
- 조기 종전 이후에도 고유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러한 경기지지 효과가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번 재정 압박 완화는 러시아가 전쟁지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할 여지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유가 상승 이후 계획된 긴축이 사실상 유예되면서, 러시아는 국방·안보 지출을 자원 압박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단기 여력을 확보하였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국방·안보 지출을 위한 재원을 매년 조달·조정해야 하는 재정 관리 부담으로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이번 고유가 국면은 그 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키는 효과를 낳았음.

- 이 점은 이란 전쟁의 파급이 에너지 시장과 러시아 재정에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더 넓은 지정학적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시사하며, 한국의 에너지·안보 정책이 이 연결고리를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함.

## 나.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책 시사점

■ 이번 사태는 한국 에너지 조달 전략의 핵심 기준이 가격 경쟁력에서 공급 안정성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재확인시켰음.

-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와 나프타의 약 34%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sup>45)</sup>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지역 충격이 발생할 경우 공급 지속성과 대체 가능성이 가격보다 더 핵심적인 조달 기준이 됨.
- 카타르 라스 라판 시설 피격 이후 한국을 포함한 수입국에 LNG 장기계약 불가행력이 선언된 사례는 저가 조달보다 계약 이행의 신뢰도와 공급 안정성이 에너지 안보의 실질적 척도임을 보여줌.

■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재개 가능성은 지정학적 위험과 전쟁 장기화 요인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중장기 공급 다변화 논의의 조건부 검토 대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제재와 지정학적 위험으로 활용이 제한되나, 비중동 공급 다변화라는 에너지 안보 논리상 중장기 검토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후보로 남아 있음.
- 한국의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특정 지역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비중동 공급원 확보는 전략적 가치가 있으며, 이는 러시아산 원유·가스가 단기 제재 환경에도 불구하고 장기 포트폴리오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됨.
- 다만 협력 재개는 국제제재 환경, 안보 리스크, 계약 안정성, 운송 인프라, 국내 정책 수용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하는 방향으로만 추진될 수 있으며, 당분간은 조건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 검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임. **KIEP**

45) 한국석유공사(2025. 6. 27.), 「[보도자료]한국석유공사, 2024년 국내 석유수급 통계 확정 공표」, [https://m.knoc.co.kr/sub05/sub05\\_5\\_5.jsp?mode=view&bid=NEWS&num=920](https://m.knoc.co.kr/sub05/sub05_5_5.jsp?mode=view&bid=NEWS&num=920)(검색일: 2026. 4. 22.).